

### 교회소식

- 그리스도인에게 선교는 의무가 아니라 기쁨입니다 ▪

오늘은 2014년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한 해 동안 동행하신 주님께 감사하며 일 년 갈무리를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오후집회 후 교육관에서 떼제찬양 연습이 있습니다. 봉사자들은 교육관으로 모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송구영신예배가 12월 31일(화) 저녁 11시에 있습니다. 예배중에 성찬식이 있습니다. (송구영신예배 관계로 이날 수요저녁집회는 없습니다.)

토요성서통독을 1월 3일(토) 오전 10:30부터 세미나실에서 시작합니다.

내년부터 교회 예배 및 모임에 변화가 많습니다. 주보의 별도 광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15년 교우전화부를 만듭니다. 번호가 바뀐 분들은 로비에 마련된 전화번호부에 수정 기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을 위해 기부금 납입 증명서가 필요하신 분은 재무부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하늘양식>과 <헤른후트 기도서>를 신청하신 분은 로비에서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사 61:10~62:3 / 시 148
갈 4:4~7 / 눅 2:22~40

시 84:1-12
-----------

오늘 식당 봉사 : 박영신 조순덕 허명선 김정미 김종락
다음 주 식당봉사 : 이형숙 광혜자 박경원 이명희 강영님 이국노 박호규
오늘설거지봉사 : 교회학교 교사
다음주설거지봉사 : 2남선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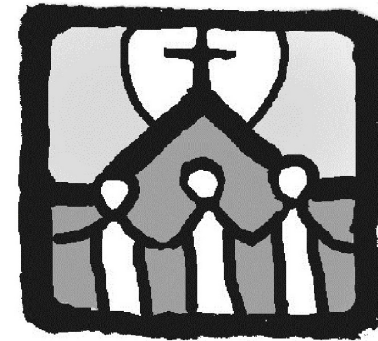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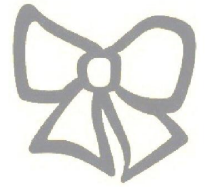
### ▪ 집 회 안 내 ▪

부별	시간	장소	부별	시간	장소
유아부	10:50	유아부실	1부 예배	09:30	교육관
유치부	10:50	유치부실	2부 예배	11:00	대예배실
유초등부	10:50	교육관	성서학당	13:30	교육관
중고등부	09:30	교육관	수요집회	11:00	교육관
청년회	13:30	청년회실	새벽기도회	06:00	교육관

- 우리교회의 주보는 재생용지를 사용하여 만듭니다 -



언제나 어디서나 그리스도인



### 우리를 당신의 몸으로 삼으소서

하나님께서로 나아가는 한적한 오솔길  
사랑과 나눔을 배우고 실천하는 곳  
청파교회는 함께하는 공동체입니다

# 주일 낮 예배 순서

자비하신 하나님, 한 해 동안 우리와 온전히 동행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눈물과 고통의 시간도 있었지만 주님이 함께하셨기에 지나온 삶이었음을 감사히 고백합니다. 한 해를 보내는 송년주일, 우리의 마음속에서 떨어버려야 할 것들은 떨어버리게 하시고 잊지 말아야 할 것들은 잊지 말고 잘 간직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주님의 몸 되신 청과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를 주님의 몸으로 삼으소서’ 고백하며 살아왔습니다. 부족함과 허물이 있었지만 작게나마 주님의 몸을 이루어 주님의 일을 하게 하셨습니다. 새해에는 더욱 주님의 몸을 이루어 사는 기쁨과 감격을 맛보며 살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 · 현금 영수기 및 속회 보고 ·

### 십일조 및 월정현금

권미숙	권혁순	박혜경	김금순	김기석	김희우	김명하	오형일	김세진
김순자	김승현	김수진	김시영	김재환	김진선	김정민	이혜령	김정훈
이진영	김종락	박영신	김주영	김현주	김혜영	김혜진	박병구	박상규
박상욱	박영희	박옥순	박윤숙	박창운	허정윤	변재민	이소혜	서정순
성귀옥	김중현	안세진	오자영	오진훈	노순옥	유상진	유은정	윤주원
최윤선	은종오	이건우	이계숙	이경남	이광용	형인순	이응석	이은경
이재삼	전정현	이주영	오재영	이준림	이현순	임고운	임서영	임승동
백혜숙	임영	정경례	임창선	임호성	장기욱	장동훈	정은선	정선희
정영례	정영우	김지윤	정원석	김현영	조문규	진정숙	조현권	박아영
최미자	최은미	최재욱	이수정	최철수	곽권희	하현철	최성애	한기택
허호범	박성실	홍복선	홍소형	홍순복	무명			

### 감사헌금

김명순	이교영	김성우	박유경	김시영	김인	박안나	김재흥	최희영
김지호	전혜리	김태정	김흥기	김희우	박대웅	강지영	박범희	박병구
방문성	오진훈	노순옥	이우상	이계선	이소순	이계숙	이부곤	이소영
이지하	이현순	장은숙	조혜윤	한상익	정영선	한훈식	권채영	무명12

생일감사헌금 권혁순 박혜경

녹색 꿈 현금 김주희 김향자 무명2

	백혜숙	박성희		
	신진식	최경미		
	장영숙	신영신		
	노순옥	진정숙		
	박홍재	박홍재		
	권미숙	박미영		
	김금순	김금순		
	곽권희	김윤수		
	안홍숙	오현정		
	정영선	홍춘숙		
	박혜경	박혜경		
	김재흥	오자영		
	김재흥	송형운		
	이범석	이진영		
	이범석	곽상준		
	신진식	윤성중		
			방	학

## < 2015년 청파교회의 집회 변화 >

### ■ 청파성서학당

매 주일 오후 1:30부터 2:20까지 교육관에서 성서학당이 열립니다.  
(강의 : 김기석 목사 / 에스겔서 강의)

### ■ 동호회

매월 둘째 주일 오후 2:30부터 동호회별로 모입니다.

### ■ 선교회

매월 셋째 주일 오후 2:30부터 선교회별로 모입니다.

### ■ 수요 집회

매주 수요일 오전 11시 교육관에서 모입니다.

### ■ 때제 찬양과 기도회

매월 첫째 주 수요일 저녁 7:30 교육관에서 열립니다.

### ■ 수요 저녁 성서연구

매월 첫째 주를 제외한 수요일 저녁에 성경을 공부합니다.  
(강의 : 김재홍, 이범석, 신진식 / 1년 40주에 걸쳐 성경 66권 강의)

### ■ 토요 성경통독

매주 토요일 오전 10:30 세미나실에서 한 시간씩 성경을 통독합니다.

### ▪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이들 ▪

담임목사 : 김기석	부담임목사 : 김재홍 이범석
원로전도사 : 박옥식	전도사 : 장영숙 신진식
소속목사 : 한인철 한정애	소속전도사 : 이재훈
원로장로 : 김성한 윤정덕 강인식 김철수 구성실 조병무	
장로 : 한완식 윤석철 방문성 한상익 김인걸	
지휘 : 윤주원 안홍숙	반주 : 최윤선 김수진 유청빈
차량 및 교회관리 : 김현동	

교우 여러분, 이제 평안히 돌아가십시오. 복음의 말씀 들었으니 참 자유인답게 사십시오. 광야같이 거친 삶이었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감싸주시고 보호해주셨습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참된 인도자이셨습니다. 그 주님을 잊지 마십시오. 그 주님만을 진리와 길로 고백하며 사십시오.

아멘. 광야 같은 삶속에서도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참된 인도자 되신 주님을 잊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것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겠습니다. 진리와 길 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인도해 주십시오. 아멘.

주일 오후	수요 집회
설교 : 신진식 전도사	송구영신 예배 (저녁 11시)

다음 주 예배위원	설교	기도	성경봉독
	김기석 목사 김기석 목사	공동기도 김기석 목사	최다미 선생 박시내 집사

12	영접위원	김인걸 송형운 주경진 정현숙 하미림 김현주
	헌금위원	한완식 김경혜

## 생협이야기

아이들을 양육하며 일본 가정에서는 ‘밖에 나가서 남에게 폐 끼치지 마라’를 강조하고, 미국의 가정에서는 ‘무언가 너만의 새로운 일을 해 보라’ 가르친다고 한다. 한국의 가정에서 자란 우리는 어떤 가르침을 받았고 또 무엇을 가르치고 있을까? 아마도 ‘나가서 남에게 지지 마라’가 아닐까 싶다. 우리는 어려서부터 경쟁을 생활화하고 심화하며 살아간다. 모두가 경쟁의 냉혹함에 진저리를 치면서도 우리들 대부분은 이것을 벗어날 삶의 대안을 찾기보다는 경쟁을 어쩔 수 없는 현실로 받아들이고 남에게 지지 않도록 열심히 노력하기에 갈수록 경쟁은 치열해진다.

그러나 본래 우리는 그렇게 경쟁하며 살도록 지음 받지 않았다. 하나님의 창조원리 속에서 민들레는 장미를 부러워하지 않는다. 우리는 토기장이의 지은 바에 따라 각자의 모습으로 각자의 존재가치를 누릴 수 있는 풍성하고도 평화로운 삶으로 초대받은 이들이다. 신앙과 상관없이 사람들은 자신의 마음과 느낌을 통해 우리가 경쟁하도록 지어진 존재인지 아닌지 이미 알고 있다. 스스로에게 물어 보라. 치열하게 경쟁하여 무엇인가를 독차지 할 때 마음이 평안한지, 아니면 누군가를 돕고 협동하여 나누어 가질 때 마음이 평안한지를. 삶의 본질은 경쟁이 아니라 협동이며 독점이 아니라 나눔이다.

그럼에도 왜 삶은 경쟁에 내몰리고 대부분은 거기서 벗어날 수 없을까? 돈의 논리가 삶의 논리를 대신하고 마침내 삶 그 자체를 장악하는데 성공하였기 때문이다. 대량생산, 대량소비, 대량폐기에 기초한 거대 자본은 싸게 사서 자주 새것으로 바꾸어 쓰는 것이 현명한 소비라고 가르친다. 그리고 더 싸게 좀 더 많이 편리하게 먹을 수 있게 해주겠다고 유혹해온다. 그 과정에서 돈의 논리에 의해 소비자와 생산자는 뺏고 뺏기는 경쟁 관계로 설정되고, 사람은 환경과 못 생명을 독점하며 그것들의 희생을 강제하게 된다. 이렇게 우리 삶의 본질이 자본에 의해 협동에서 경쟁으로 나눔에서 독점으로 변질되었다.

자본에 의한 경쟁체제가 갖는 무서움은 개개인의 승패와 무관하게 그 경쟁에 참여하는 모든 이를 희생자로 만드는데 있다. 시장경쟁 하에서 소비자는 소비결정의 주권을 가지고 있는 왕으로 높임을 받는 듯하나 사실 자본에 의해 이용되어 돈 쓰는 역할을 할 뿐이다. 자본의 논리에 따라 포장된 ‘현명한 소비’를 할수록 소비자 스스로 구매력 확보를 위한 치열한 경쟁 속으로 더 깊게 빨려 들어가며 자본의 지배력을 강화해 줄 뿐만 아니라 환경과 생명의 연대와 협동을 파괴하는데 앞장 서는 존재로 전락한다. 생각 없는 유권자가 선거를 통해 나쁜 정권을 존속시켜 줄뿐 정치로부터 소외되고 배제되어 그 정권 치하에서 고통 받는 것처럼.

그러나 이 소비자들이 자본이 강제하는 경쟁체제를 벗어나 협동과 나눔에 기반한 소비를 한다면 세상은 바뀔 수 있다고 믿는다. 이것이 2011년 청과교회 환경세미나 물건이야기와 2013년 음식이야기를 통해 확인한 환경파괴, 생명파괴의 근본원인 속에서 만난 소비자라는 이름에 주목하여 올해 생협이야기를 주제로 환경세미나를 개최하게 된 이유이다. 환경을 생각하고 지구와 못 생명들에게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주는 방식으로 물건을 생산하며, 그것을 누가 어떻게 생산하였는지를 알고 소비하는 방식. 이윤이 소수 자본가에게 독점되는 것이 아니라 생산과 유통, 소비에 참여한 모든 이에게 나누어지는 방식. 생산자는 소비자의 돈을 탐내고 소비자는 생산자의 몫을 가로 채는 것이 아니라 소비자와 생산자가 협동하여 더불어 함께 사는 방식. 경쟁이 아닌 협동, 독점이 아닌 나눔, 돈의 논리가 아닌 생명의 논리로 소비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것과, 우리 교회 식당 옆 작은 공간인 청과생협을 통해 바로 실천이 가능하다는 것을 세미나를 통해 확인하였다.

지난 11월 있었던 환경세미나 ‘생협이야기’는 경쟁을 종용하는 자본주의 경제 구조를 벗어날 수 있는 대안으로 생활협동조합을 소개하고, 소비자로서의 주권을 회복하여 생산자와의 협동을 강화하며 하나님의 창조질서 속에서 못 생명들과의 연대가 가능한 바른 소비 생활 운동을 실천하자는 제안이었다. 세상의 변화는 언제 어디서나 그리스도인으로 생명의 바람 평화의 물결이 되고자 하는 우리 청과교인들의 생협 이용에서부터 시작되리라 믿는다. [환경부]